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음악

객관적으로 예술적 우수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

culture 'art

새로 발족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문화예술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어진 작품만이 아닌, 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교류함으로써 나와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예술의 지향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원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음악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05-현재)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회장 (98-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연구이사 (03-현재)
-중앙대 음악대학 피아노학과 전임교수

문화예술의 생명은 창의성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활동을 일정한 그릇을 통해 담아내어 이를 체험하고 느끼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자각하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주어진 작품만이 아닌, 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교류하며 비교함으로써 나와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예술의 지향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것' 과 '새로운 것', 그리고 '나의 것' 과 '나 아닌 것' 이 서로 공존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예술정책에 대한 지원은 그간 제한된 범위내의 예술인과 관 주도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예술 진흥 정책의 수립,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평가 작업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예술 현장의 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장르중심, 제한된 기존 예술단체 및 예술인 중심의 관계적 지원에 그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인식에 바탕 하여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예술위원회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 예술 및 문화일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인이 모인 위원회인 만큼 서로 자신의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발전의 모색의 힘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분야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타 장르와 상호 공존 가능한 범위 내의 자기 분야의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위원들은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큰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분야에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위 '코드인사' 우려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술의 항구적인 생명력은 이념 지향적인 경우보다는 이념을 초월한 인간 지향적인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을 목표로 하는 예술위원회가 위원 구성 비율에 따라 편향성을 띠거나, 예술 발전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망각하고 당리당략의 추구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열중할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위원회의 앞날은 자

명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화예술이라는 덩어리를 살리겠다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이를 위한 치우침 없는 판단과 결정만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탈바꿈하는 위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문예진흥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방식의 문제점과 조직 내의 정체성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간 문예진흥원은 지원단체간의 산술적 균형에 치중하여 소액다건식 지원을 관행처럼 실시하여 왔으며, 조직적인 면에서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상담 창구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이 찾아와서 창구를 두드릴 때에야 비로소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마당'을 직접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들으며 문제를 '언어'와서 의제화 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예술위원회의 조직에서는 열린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적인 형태로의 전환과 조직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지원원칙을 바탕으로 음악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수한 음악인 또는 우수한 음악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신구(新舊)를 막론하고 객관적인 검증은 통해 예술적 우수성이 검증된 음악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음악인 및 음악단체에 대한 그간의 업적과 현재의 활동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검증절차를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대상이 될 작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가급적 사전 지원보다는 검증된 작품 및 연주에 대한 사후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 지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지원액에 맞는 작품이나 행사를 제작 또는 기획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공연이나 작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작품이나 행사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예술적 우수성이 검증되면 지원을 실시하

여 우수한 작품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찾아가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음악인들의 경우 음악 행위 이외에는 관심이 없거나,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지원창구를 두드리는 일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끔은 지원창구 근처에서는 음악보다는 행정에 밝거나 음악 외적 능력이 많아 예산을 따내는 일에 재주가 있는 로비스트 경향이 강한 음악 인사들이 머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위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보고 평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내고 지원이 필요한 단체나 음악인으로 하여금 지원이 적극 검토될 수 있으니 창구로 찾아오도록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의 비율을 고려하여 문화예산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원액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하여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체험과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효율성 향상은 지원금액 외에 적절한 프로그램과 적절한 연주 형태 및 연주자의 선정도 아울러 중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느 특정 음악분야에 지원이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음악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 분야나 일부단체에 치중할 경우 다양한 음악 분야의 공존과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타 공연 예술분야와는 달리 음악분야는 개인 예술 활동의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공연이나 규모가 큰 공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 발족하는 예술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을 정점으로 모든 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